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재부인 자립경제를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자면 수입병을 없애고 생산과 건설에서 국산화비중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 제힘으로 일떠설 각오와 배심을 가지고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신다.

지금으로부터 십여년 전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수입병을 없애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주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애국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이 가르치심에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력으로 살아나갈 각오를 가져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헤치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 숭고한 뜻이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그날의 가르치심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력의 정신을 백배해주고있다.